



5면

시민 불편 해결사 역할 특보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선거보다 도정 수행 우선 김 지사, '책무형 행보' 선언

“예비후보 등록 보류, 본경선에 임할 것... 도지사로서 맡은 책임 끝까지 수행”
정책 연속성 키워드로 제시... 첨단산업 중심 경제 전환 등 차기 도정 구상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본경선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선거보다 도정 수행을 우선하는 '책무형 행보'를 선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김관영 지사가 24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정 완수를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본경선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역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지사는 전북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전북특별법 3차 개정안 통과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특별자치도에 걸맞은 권한과 자원을 확보해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가능하다"며 "국회와 끝까지 협의에 실질적 해답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민생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상황을 언급하며 "도민 삶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행정 책임자가 현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전북 발전의 핵심 키워드로 '정책의 연속성'을 제시했다.

그는 "전북은 지금 변화의 초입 단계에 있다"며 "이 흐름이 중단되거나 흔들릴 경우 어렵게 확보한 대전환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검증된 정책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도정의 안정적 운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지사는 차기 도정 구상도 함께 밝혔다. 핵심은 △첨단산업 중심 경제

전환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공용 산업 육성이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방산 혁신 클러스터,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북을 신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해 "정부 승인을 반드시 이끌어 내 전북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금융 중심지 지정과 자산운용 기능 집적을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김 지사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과열 양상을 경계하며 정책 중심 경쟁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경선은 정책의 향연이자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상대후보를 공격하는 방식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이 가장 공감해하는 것은 누가 더 전북의 먹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이라며 정책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경쟁 후보인 안호영 국회의원의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은 적극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다"며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도정에 적극 반영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지난 민선 8기 4년여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정 운영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드러냈다.

그는 "전북은 128만 민에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등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이제는 그 성과를 완성해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 발전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대도약을 통한 전북 특별시대의 성공적 안착을 끝까지 책임지고 실력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이재운(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식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6.3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후보자 2차 심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민주 전북 기초단체장 후보 심사 절차 마무리

도당 공관위, 2차 결과 발표
정읍·남원·김제·완주 대상
정읍 5명 포함 총 17명 확정
후보자 본격 경선 국면 돌입

민주 전북 기초단체장
2차 심사 후보자 명단

- ▲정읍시·김대중, 안수용, 이상길, 이학수, 최도식
- ▲남원시·김영태, 김원종, 양충모, 이정린
- ▲김제시·강영석, 나인권, 임도순, 정성주
- ▲완주군·서남용, 유희태, 이돈승, 임상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공식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운)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후보자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북지역 기초단체장 공천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전북도당 공관위는 2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남원·김제·완주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차 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로써 도내 14개 기초단체장 선거구에 대한 후보자 심사 절차는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심사에는 4개 선거구 총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역별로는 정읍시 5명, 남원시 4명, 김제시 4명, 완주군 4명이다. 공관위는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경선 절차에 돌입한다.

경선 방식은 후보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인 이상이 경쟁하는 정읍시는 관리당원 투표 100%로 예비경선을 먼저 실시해 상위 4명을 가린 뒤 본경선과 결선을 치른다.

반면 남원·김제·완주 등 3개 지역은 관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여론 50%를 반영한 본경선을 실시하며, 과

선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들의 감정 적용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유별로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공관위원들의 임의 조정은 불가능하다"며 "예외 적용과 감정 여부에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또는 연동해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표를 끝으로 민주당 전북도당 공관위의 기초단체장 후보자 심사는 모두 완료됐으며, 각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이만호 기자

도, 중동상황 장기화 대응 강화

반 투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간 결선투표로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는 △정읍 이학수·이상길·김대중·안수용·최도식 △남원 김영태·김원종·이정린·양충모 △김제 강영석·나인권·임도순·정성주·유희태·이돈승 등이다.

이재운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심사 기준과 관련해 "당 정체성 훼손이나 불법 행위 등은 감점 요소로 반영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을 이끌 지도자로서의 적합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부 감점 사유는 공정성을 위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해당 후보자에게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일부 평가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며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부본적으로 알려진 정보는 사실과 다를 수 있다"며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혼

전북특별자치도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2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도는 중동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 3월 11일부터 비상경제대응TF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유가 안정 및 유통 질서 관리를 위해 국제유가 변동에 따른 가격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수출기업 분야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으로 경영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긴급 특별자금 편성과 물류비·비유저 지원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소상공인 분야는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 정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민생물가 분야도 가격 동향을 지속 관리한다. /이만호 기자

